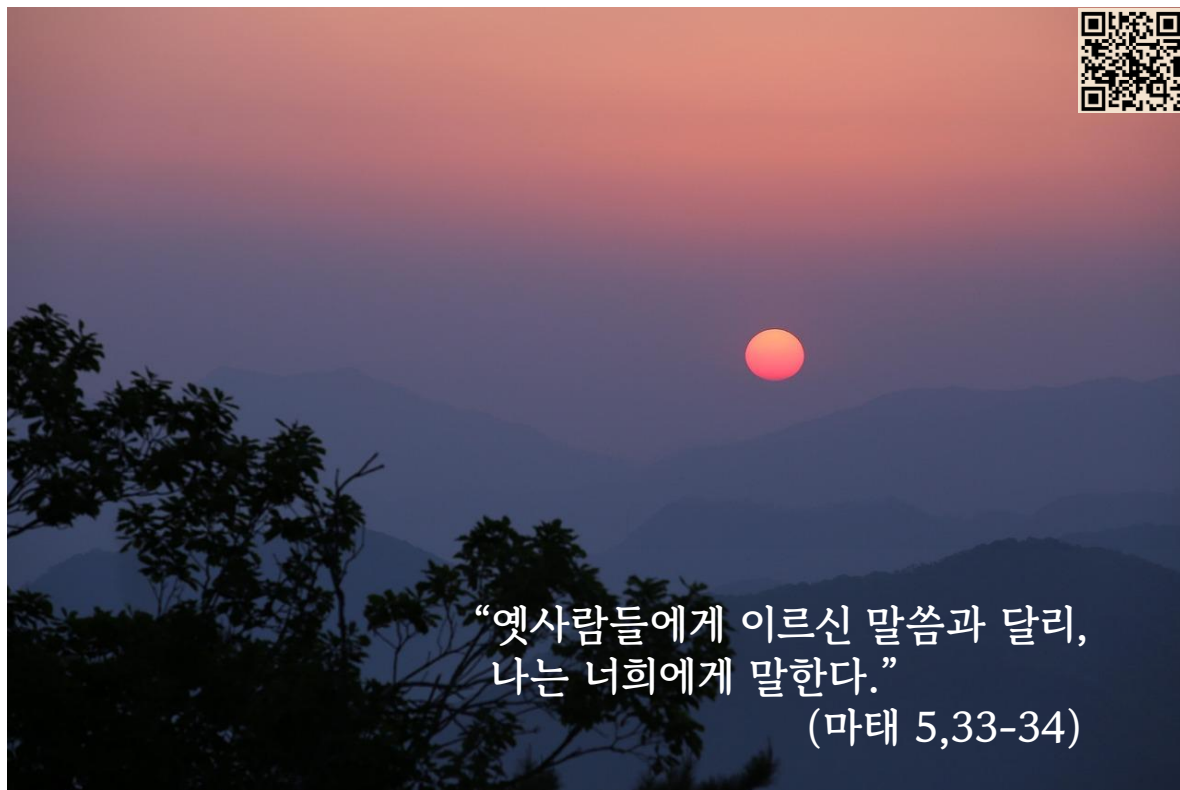


아케엠주보

연중 제 6 주일

Association of Korean Catholic Communities of the Middle East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과 달리,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마태 5,33-34)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AKCCME) 한국어 미사 시간]

수호성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카 페 <https://cafe.daum.net/akccme>

회 장 김대순 가브리엘 (+971 56 480 7672)

편집/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971 56 701 7702)

발행인/전담사제 김성인 미카엘, OFM (+971 58 568 7985)

사무실 +971 2 446 1929

주 소 St. Joseph's Cathedral, Al Mushrif W24-02

P.O. Box 54, Abu Dhabi, UAE

관할지역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 UAE 아부다비 성 요셉 성당:
첫째/셋째 토요일 12:00 *
- UAE 두바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
둘째/넷째 주일 14:00 *
- UAE 루와이스/바라카 성 요한세례자 성당:
둘째/다섯째 토요일 17:30
- 쿠웨이트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5:00
- 카타르 목주의 성모 성당: 둘째 금요일 15:00
- 이집트 카이로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1:00

* 미사가 없는 주에는 '공소 예절' 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전례: 연중 제6주일

주님의 계명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법조문의 준수와는 다릅니다. 주님에 대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기꺼이 실천하라고 말하는 사랑의 계명은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끕니다. 생명의 길로 이끄는 주님의 계명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이 미사에 참여합니다.

- 제1독서

집회 15,15-20

- 제2독서

1코린 2,6-10

- 복음

마태 5,17-37

- 영성체송

시편 78(77),29-30 참조

- 입당송 시편 31(30),3-4 참조

- 화답송 시편 119(118),1-2.4-5.17-18.33-34(◎1 참조)

- ◎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 행복하여라. 온전한 길을 걷는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 당신을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 당신 종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살아 당신 말씀 지키오리다.
제 눈을 열어 주소서. 당신의 놀라운 가르침 바라보리이다.◎

- 주님, 당신 법령의 길을 가르치소서. 저는 끝까지 그 길을 따르오리다.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오리다.◎

- 복음환호송 마태 11,25 참조

-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 알렐루야.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주님의 지체인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힘없고 보잘것없는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2.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의로우신 주님, 공직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올바르게 깨닫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3.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희망이신 주님, 이웃과 사회의 무관심으로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이들을 굽어보시어,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 의지하며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4. 중동 한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리이신 주님, 저희 중동 한인 공동체에 은총을 주시어,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삼가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전례: 설

오늘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조상을 기억하며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께 세배를 드리며 덕담을 나눕니다. 그렇지만 새해가 시작되는 이날에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늘 깨어 준비하고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미사에 참여합니다.

• 제1독서

민수 6,22-27

• 입당송 마태 28,20 참조

• 화답송 시편 90(89),2와 4.5-6.12-13.14와 16(◎17ㄱ)

◎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 이시옵니다.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습니다.◎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 제2독서

야고 4,13-15

• 복음환호송 시편 145(144),2

- ◎ 알렐루야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 알렐루야

• 복음

루카 12,35-40

• 보편 지향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살피 주시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복음을 실천하고,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2.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오래도록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저희 겨례를 살피 주시어, 새로이 밝은 이 해에 남과 북이 화해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소서.
3.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지켜 주시어, 이 세상에서 희로애락을 겪으며 최선을 다한 그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소서.
4. 중동 한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일치 주님, 중동 한인 공동체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더해주시고 서로 화합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 영성체송

히브 13,8

[UAE] '설' 위령 미사

▶ 두 바 이: 2월 8일 주일 13:30, 성 프란치스코 성당

▶ 아부다비: 2월 14일 토요일 12:00, 성 요셉 성당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고,
그대를 지켜주시길.

민수 6,24

시편 130(129)



◎ 제 - 영 혼이 주 님을 기다 - 리나 이다



○ 깊은-구렁 속 에서- 주 님께 부르짖사 오니



주님 - 제 소 리를 들어 - 주 - 소서



● 제가- 비는 소 리를 귀 여겨- 들으소서



○ 주님 - 께서 죄 악을- 헤아 리신 다면



주님 - 감 당 할자 누구 - 이 - 리까



● 오 - 히려 용서 하 십이- 주 님께 있사와



더 - 더욱 당 신을 섬 기라 하시- 나- 이다



○ 제 - 영 혼이 주 님을- 기다 리 으며



당 - 신의 말 씀을 기다 - 리 나 이다



● 파수 -꾼이 새 벽을- 기다 리기 보다



제 - 영 혼이 주 님을 더 기다 - 리나 이다



○ 파수 -꾼이 새 벽을- 기다 리기 보다



이스-라 엘이 주 님을 더 기다 - 리나 이다



● 주님 - 께는 자 비가 - 있사 읍고



풍요 -로운 구 속이 있음 - 이 - 오니



○ 당신 - 께 서는 그 모든 - 죄악 에서



이스-라 엘을 구속 하시 - 리 - 이다



◎ 제 - 영 혼이 주 님을 기다 - 리나 이다

[쿠웨이트] 설맞이 공동체 야유회



- ▶ 일 시 : 2 월 13 일 (금), 10시
- ▶ 장 소 : Al Jahra 주 Kabd 지역 펜션
- ▶ 행사 내용: 각종 전통 놀이, 세배 행사 및 음식 나눔

[아부다비] 설 위령 미사

- ▶ 일 시 : 2 월 14 일 (토), 12:00
- ▶ 장 소 : 성 요셉 성당 페리시홀

※ 공동체에서는 차례상, 위령 명단, 연미사 예물을 준비해 주십시오.

※ 미사 중 연도(시편 129편) 및 가족 분향이 있습니다.



[아부다비] 견진성사



Sacrament of Confirmation

- ▶ 일 시 : 2 월 17 일 (화), 19시
- ▶ 장 소 : 성 요셉 주교좌 성당
- ▶ 대상자: 이태영 미카엘 (1명)

※ 성사를 통해 성령을 충만히 받아 하느님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견고한 신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캠] 전담 사제 공동체 사목 방문 일정

- ▶ 방 문 : 카이로(이집트) 공동체
- ▶ 기 간 : 2 월 25 일(수) ~ 2 월 28 일(토)



[전례] '사순 시기' 시작과 '재의 수요일' 예식 참여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2월 18일)에 본당 미사에 참여 합니다.

- **금식재** (만 18세 ~ 60세): 한끼 식사 금식
* 단식일: 재의 수요일(2/18) / 주님 수난 성 금요일(4/3)
- **금육재** (만 14세 이상): 모든 금요일에 고기를 먹지 않음.
* UAE는 '금요일'에 금육재를 지내며, 금요일을 휴일로 지내는 국가는
'수요일'에 재계(齋戒)*를 지킴

※ 금식재와 금육재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 사순 기간 동안, 가난한 이웃을 위해 절약한 몫을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봉헌합니다.

*재계(齋戒):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규범. 속죄와 정화 및 수행과 극기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기에 재계의 규율을 지킨다.



[아캠] 아캠 상임 위원회 정기 회의



- ▶ 대 상 : 아캠 내 각 공동체 대표
- ▶ 일 시 : 2월 24일 (화) 21시 (UAE 기준)
- ▶ 방 법 : '아캠 공용 줌' 으로 접속(회의 번호: 895 0419 9583, 비밀 번호: 1004)
- ▶ 안 건 : 1) 사순 특강 2) 공동체별 활동 보고 등

[교종 레오 14세] 2월 기도 지향

2월: 난치병을 앓는 어린이들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이 필요한 치료와
지원을 받아, 결코 힘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설’

중동 한 인
AKCCME 가 톨릭
공동체

함께하며, 하나되며
모습들

<두바이 공동체>: 설 위령 미사 및 설맞이 행사



2월 8일(주일) 1:30pm

우리집
가훈을
소개합니다!



A Family in Christ

Family Value

Family Motto

Family Creed

한 해를 여는 우리 가정의 약속을 가훈으로 나눠 주세요.♡
성경 말씀에서 받은 은총과 가훈에 담긴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아캠 새해맞이 '가훈 소개' 이벤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아캠 '가훈 소개' 이벤트 응모

- ▶ 응 모 기 간 : 2월 8일 (주일) ~ 2월 28일 (토)
- ▶ 참 석 대 상 : 아캠 공동체 내의 모든 가정
- ▶ 응 모 방 법 : 가훈을 정하게 된 계기가 된 성경 구절과 그 가훈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첨부할 이미지(가족 사진 등)를 포함하여 1,000자 내외의
사연을 작성해 사무국으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응모를 통해 아캠 새해맞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가정의 가훈은 주보를 통해
소개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상품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형제자매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6 아캠 사목 표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



시간을 내어 기회를 만들어 서로 자주 모여 친교를 이루는 것이 작년에 아캠 공동체의 나아가는 바였다면, 올해에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그분의 '뜻'에 더 일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캠의 각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를 통해 주님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인데 (마태 18,19)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시편 34,16).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야고 5,16).

기도의 중요함을 막연히 알고 있지만 그저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는 것에서 나아가, 시간을 정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기도의 소중함을 몸소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아캠 온라인 기도 모임

- ▶ 기 간 : 1월 28일 (수) ~ 12월 30일 (수), 매주 수요일 21시 (UAE 기준)
- ▶ 참 석 대 상 : 아캠 공동체 내의 모든 교우
- ▶ 기도 모임은 공동체별로 한 주씩 돌아가며 이끌어 가고, 아캠 공동체 및 각 공동체의 기도 지향에 따라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아캠 전담 사제 *김성인 미카엘 아미.*



수도자들을 위한 기도



- 세례 성사의 은총을
더욱 풍부하게 열매 맺도록
자녀들을 수도자의 길로 부르시는 하느님,
수도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고
오랫동안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봉헌하는 삶이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 하느님,
수도자들이 성령께 온전히 귀 기울여
복음의 증거자로서
정결과 청빈과 순명의 삶을 살게 하시어
자유로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사제들을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 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축성하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 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 아멘.



말의 위력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눈에 보이지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말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다. 상담가들은 말은 보이지 않는 칼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세치 혀가 화를 불러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말 중에서 가장 좋은 말은 칭찬하는 말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듯이 칭찬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주기도 한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부모와 어른들로부터 칭찬을 충분히 받고 자란 사람들이다. 반면에 가출청소년들을 비롯한 문제아들이 가진 공통점은 칭찬결핍증후군이다. 칭찬을 듣지 못하니 부정적 관심이라도 받아보려고 사고를 친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 부모나 어른들이 던진 차가운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혀서 평생을 가슴앓이 하면서 사는 경우들을 상담현장에서 보면서 말이 가진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늘 느낀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아주 위력적인 수단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속담이 있다. 오래된 속담이지만 진리이다. 가는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데 오는 말이 고울 리가 없다. 결국 모든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세치 혀를 잘못 놀린 데서 비롯된다.

그런데 우리가 별로 개의치 않고 하는 말이 있다. 일명 조언이나 충고라는 미명(美名)의 말들이다. 상담가들은 조언이나 충고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위하기보다 자신이 잘났음을 과시하기 위한 무의식적 욕구가 깔려 있기에 아무리 충고를 하고 싶다하더라도 입을 다무는 것이 좋다.

끈대유머. 세상살이에 지친 중년이 훌쩍 넘어가는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왔다. 매일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아 그래 여길 들어오길 잘했어' 하고 스스로 칭찬했다. 그러던 중 젊은 수도자가 물었다. "세상살이가 어떠한가요?" 그는 "아, 세상은 그야말로 별 의미 없고 피곤하기만 하다네. 수도원에서 사는 게 아주 좋아. 자네는 좋은 선택을 한 거야. 가서 기도하시게"하며 젊은 수도자에게 답했다.

그러자 젊은 수도자는 무언가 안색이 불편한 채로 성당을 가더니 중얼중얼 기도했다.

무슨 기도를 할까 궁금해서 엿들었더니 이렇게 기도하더라. "웃기네, 자기는 세상에서 다 해봤으면서. 웃기네, 자기가 뭐가 잘났다고. 웃기네, 자기처럼 다 해봤으면 난 벌써 성인되었겠다."

이처럼 말이 가진 힘이 크기에 말조심을 하라고 미사경문에 말로 지은 죄라는 기도문이 붙은 것이다



사.진.목.상.



Peru, 2010 (사진, 글 by 박노해 가스파르 시인)

산은 길을 품고

지금 길이 보이지 않아도

산은 언제나 길을 품고 있다.

구름 사이로 잠깐, 한 줄기 빛이 내리면,

산은 가만히 길을 내어주고

산은 말없이 내 등 뒤를 지킨다.

나만의 길을 찾아 걷는 사람에게는

분명 나만의 빛이 오는 때가 있으니.

아캠 기금 납부 및 후원 안내

아캠 기금은 아캠 규정 '제15조 거룩한 직무를 위한 비용'에 따라 전담 사제의 성무활동비, 사무국 운영 및 한인 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중동지역 내 한인 공동체들의 '자발적 납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인터넷 뱅킹 접수

Account Holder Name: JEONGIN PARK
Bank : Emirates NBD / Account Number: 0999501772101
IBAN: AE52 0260 0009 9950 1772 101
(송금시 reference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ARAKO 두바이 한인 부동산 Sale / Rent/ Off Plan 상담  오픈챗  최은정 셀레나 (055. 360. 0733)	SUZE 수제과일청 각종소스류 • 100% Handmade • 100% Fresh Fruits • 100% Organic Sugar 홈카페 / 내,외국인 선물 / 단체주문 박혜정 안젤라 (058. 580. 2814) /  : angela7204	GULF KOREAN TIMES 걸프 코리아 타임즈 • 중동 대표 한인 교민 신문 •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비즈니스 홍보 & 마케팅 기회 제공 • 외국 커뮤니티와의 협력, 유대 기회 정미숙 라파엘라 (광고 문의) (+971) 50 461 3991 /  : @gktmedia
---	--	--